



북미주 지역 북클럽

참된 신앙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지 않고 매일 성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한 인생 여정에서 독서를 통해 그리스도만큼 높고 길고 넓게 성장하며, 사랑, 자유, 치유를 체험하는 길을 발견하여 온전한 나의 모습을 찾고 살아가는 영역을 키우게 합니다. 그 영역을 키우기 위해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북클럽을 하려고 합니다.

1. 매달 모임: 줌(zoom Meeting)
2. 회수 및 날짜: 한 달에 한 번
3. 시간: 70-75분
4. 대상: 성인 남녀 가톨릭 신자
5. 지역: 북미주 지역 전체
6. 연락처: 흥 켈마 수녀 C. 336-528-2111
gemmah132@gmail.com

* — 이민 생활 속에서 느꼈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느님 체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며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 한덕수 아벤티노 신부 | 미국 · Orlando, FL.
성 김제준 이나시오 본당 주임, 북미주 한인 사목사제협의회장

* — 이민 온 지 35년 가까이 되어가는 나도 이 책에 담긴 많은 분들의 삶의 모습에 공감이 간다. 모두가 다른 이유로 이민 생활을 결정하고 다르게 살아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며 이끄셨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 안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삶이 변하는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최유상 베드로 신부 | 캐나다 · Toronto, ON. 예수성심본당 주임

* — 서로 다른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고향과 내 나라를 떠난 이민자들이 그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걷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마음 아프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짧은 시간이지만 낯선 미국에 파견되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또한 용감한 형제, 자매들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주님을 찾고 만난다. 씩씩하게 살아 주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김희옥 루시아 수녀 | 미국 · Portland, OR. 한국 순교자 성당

* — 이 책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책이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 저절로 마음이 열리며 저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 안에서 독자들에게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란다.

| 박테보라 | 미국 · Tri City, NC. Fellowship Church 교회 전도사

* — 이 책은 해외에서 살아가는 천주교인들이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렸던 시련과 그 속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 이겨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다. 각자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비신앙인인 나에게도 과연 어떠한 종교적 힘이 있길래 이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힘의 원동력을 주는 천주교인들의 삶에 강한 이끌림을 받기도 했다. 종교적인 경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며 타지에 사는 이민자들에게 용기를 준다.

| 강창근 | 캐나다 · Whitby, ON. 비신자

꿈과 여정 - 북미주 한인 이민자 체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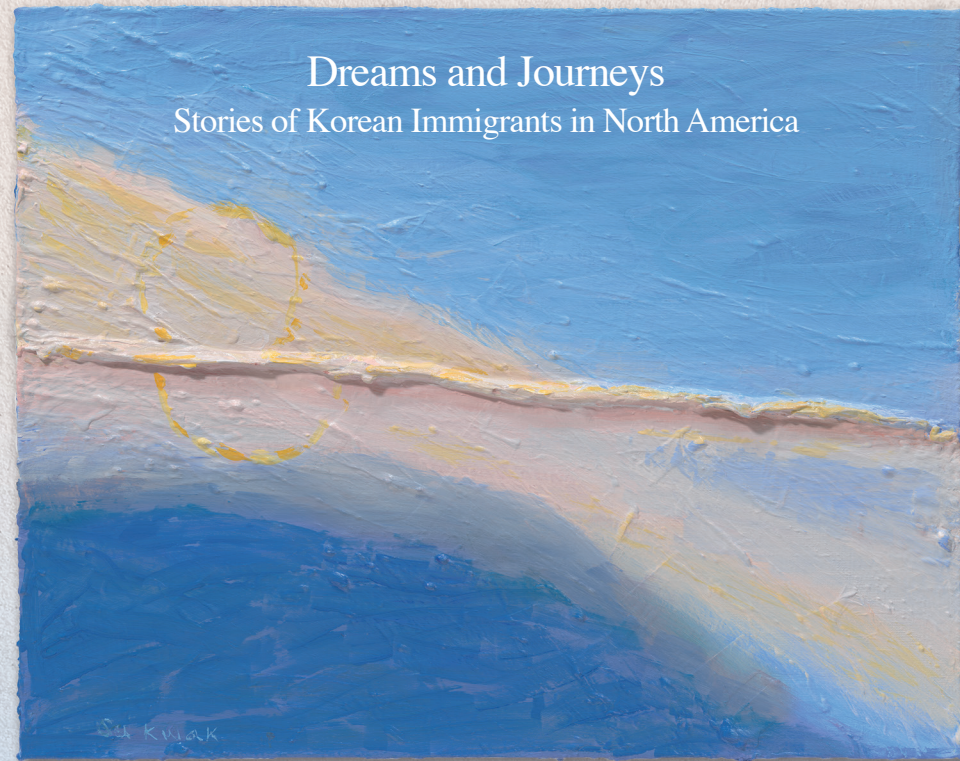
Dreams and Journeys - Stories of Kore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

ISBN 979-8-214-41670-6



꿈과 여정 - 북미주 한인 이민자 체험기 -
Dreams and Journeys - Stories of Kore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

북미주 한인 이민자 60인



꿈과 여정

- 북미주 한인 이민자 체험기 -

북미주 한인 이민자 60인



이 책은 60명이 썼으니 60개의 삶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형태로 죽음과 부활을 살아간 이야기들을 나눈 글이 책이 되어 나온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의 글은 유명한 작가들이 쓴, 잘 짜여진 문장이나 문맥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낸 이야기들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삶은 축복이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느님과 함께 엮어낸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음을 나누는 글모음이다. 어려움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곳에 살아가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깨닫고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 창조 이야기가 오늘날도 이어지는 이야기들이다.



표지그림 Crossing to New Life
Su Kwak 2020, acrylic on canvas,
16 x 20 in(41 x 51 cm)